

1월6일

위험선호

분위기

속

위안화

주시

환율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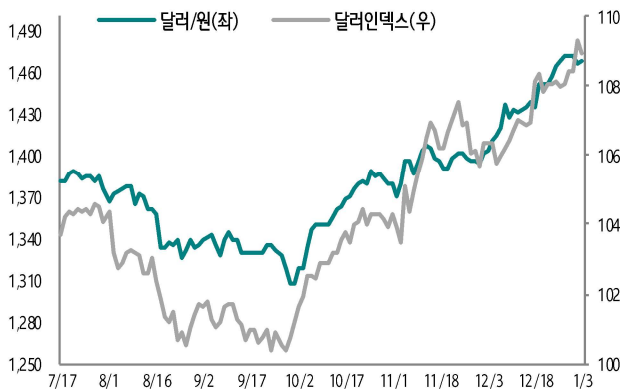
[USD/KRW]

USD/KRW 예상 : 1464~1473원
NDF 증가 : 1466.85 (Swap point : -1.65, 1468.5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에도 달러 지지력과 위안화 약세에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미 제조업 PMI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나타남. 이에 뉴욕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경우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의 지지력이 유지될 점은 하단을 지지할 요인. 또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시그널을 보낸 점도 원화에 부담 요인. 이에 환율은 소폭 하락 및 1460원 대 후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3일 달러/원 환율은 유로존 성장 둔화 우려 속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강달러에 2.4원 상승한 1469.0원 출발. 이어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압력 제한되며 1.8원 오른 1468.4원에 주간 거래 증가 기록. 예상 웃돈 미 제조업 지표를 반영하며 전일대비 0.6원 오른 1469.7원에 마감

|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 중국 위안화 약세와의 동조화 압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제조업 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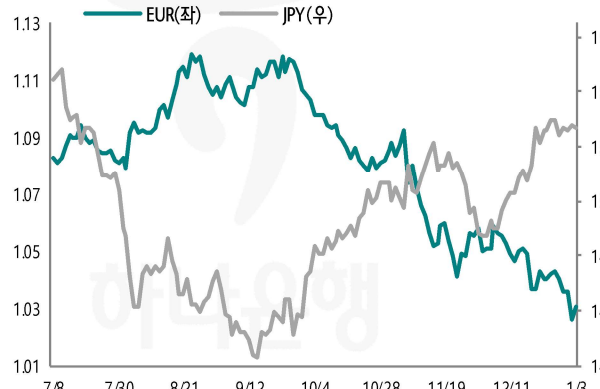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0276~1.0346
USD/JPY 예상 : 157.05~157.65

- (USD Index) 달러는 미 제조업 PM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리스크온 분위기 차익 실현성 거래 등에 약세 압력을 받음. 달러인덱스는 0.36 하락한 108.94 를 기록하며 109선을 하회
- (EUR) 유로화는 미 제조업향 개선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와 독일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에 반등한 가운데 유로/달러 환율은 0.0044달러 상승한 1.0306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미 제조업 지표 개선과 미 국채 수익률 반등에도 달러 약세가 나타난 영향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 달러/엔 환율은 0.27엔 하락한 157.35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 구분 | 증가(전일비) | 재정환율(KRW) |
|-----------|------------------|-----------------|
| USD Index | 108.94 (-0.36) | |
| EUR/USD | 1.0306 (+0.0044) | 1513.32 (+8.34) |
| USD/JPY | 157.35 (-0.27) | 933.24 (+2.80) |
| USD/CNH | 7.3608 (+0.0198) | 199.48 (-0.29) |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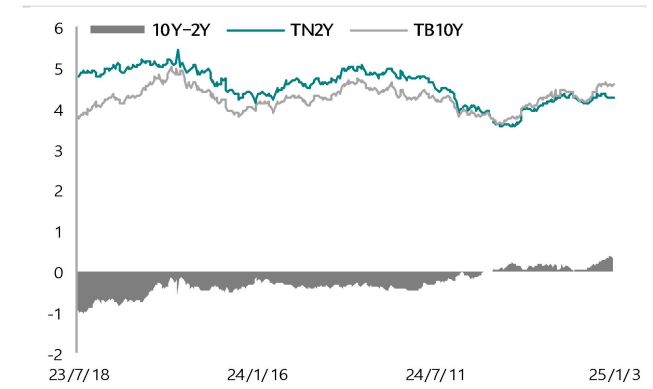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31.90bp (전일대비 +0.10)

-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 제조업 지표에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된 모습. 미 12월 ISM 제조업 PMI는 전월비 0.9p 상승한 49.3으로 집계되며 예상치 48.4를 상회. 하위지수 중 신규주문지수는 52.5로 2.1p 상승한 반면 고용지수는 45.3으로 2.8p 하락.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미 국채 수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웃돈 제조업 PMI에 2년물 3.70bp 상승한 4.281%, 10년물 3.80bp 오른 4.600% 기록.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탄탄한 제조업향에 투자심리 개선되면서 다우지수 +0.80%, S&P +1.26%, 나스닥 +1.77% 마감.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며 상승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 시간 | 내용 | 예상 | 이전 |
|-------|--------------------|-------|-------|
| 22:00 | 독일 12월 CPI상승률(YoY) | 2.4% | 2.2% |
| 00:00 | 미국 11월 내구재주문(MoM) | -0.3% | -1.1% |
| | 미국 11월 공장주문(MoM) | -0.3% | 0.2% |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